

淸陰 金尙憲 漢詩에 나타난 지식인의 苦惱와 超脫에 대하여*

김하윤**

|| 차례 ||

- I. 서언
- II. 淸閑-고즈넉한 일상의 음영
- III. 孤獨-인생의 무상함 투영
- IV. 達觀-초월적 태도와 여유의 경지
- V. 결언

【국문초록】

청음 김상헌은 17세기 병자호란 당시에 척화파의 영수로 각인되는 문인관료이다. 명나라와의 再造之恩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소신을 固守한 청음은 현대까지도 지조와 절의의 상징으로 회자된다. 그의 인생 전반이 節操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현대 대부분의 연구도 이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節義의 관점에서 벗어나 보면 청음도 당시의 지식인처럼 고뇌하고 초탈하는 모습을 보여준 보편적 지식인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병자호란의 중심에 섰던 시인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순수한 지식인으로서의 청음의 모습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절조의 상징으로 각인된 강인한 모습과는 달리 고즈넉한 일상을 노래하는 淸閑한 모습부터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한 평범한 지식인의 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 나아가 여느 지식인처럼 현실을 벗어난 초월적 태도를 지향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달관의 여유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음의 이러한 여러 모습들이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배재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배재대학교 교양교육부 조교수.

강직함의 질조로만 인식되던 모습에서 탈피하여 현실적 고뇌를 지니며 번민하고 초탈하고자 한 영락없는 보편적 지식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주제어: 金尙憲, 丙子胡亂, 淸閑, 孤獨, 達觀, 苦惱, 超脫

I. 서언

17세기 초, 광해군은 후금과의 중립적 실리외교를 추구하면서 국제정세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국내의 분위기는 광해군의 이러한 외교정책이 명나라와의 再造之恩을 버린 행위라는 신하들의 반발과 廢母殺弟의 비판이 더해지면서 결국 인조반정을 초래하는 단초가 된다. 왕권을 잡은 인조는 노골적인 親明排金 정책을 시행하며 후금을 자극하게 되고, 결국 후금은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청나라를 세운다. 이어 조선에 대한 청의 압박은 점점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는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척화론자와 실리를 주장하는 주화론자의 의견 대립이 첨예하게 맞서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청은 1636년 병자호란을 일으키게 되고, 이후 청과 조선은 수직적 군신관계로 전락하게 된다.

당시 청나라의 위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고자 했던 중심에는 淸陰 金尙憲(1570-1652)이 있었다. 청음은 조선 중기 병자호란 당시 斥和派의 首長으로 상징되는 관료문인이다. 청음의 節操는 道學의 바름과 節義의 고상함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청나라 사람들에게도 공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¹⁾ 동시대 문인인 桐溪 鄭蘊(1569-1641)

1) 정조, 『弘齋全書』 권171, 『日得錄』 11, 인물1, “金淸陰道學之正, 節義之高, 不獨我國之所尊慕, 抑亦淸人之所敬服, 則文章特其餘事耳. 予於稱道時, 不曰故相, 曰先正者此也. 向來致祭文中, 其文韓曾, 其學濂洛, 云者, 指道學文章也, 東海之水, 西山之薇, 舉以酌卿, 淸標是似, 云者, 指節義也.”

도 北海의 蘇武와 冷山の 洪皓일지라도 청음보다 더 낫지는 못할 것이라며 극찬하였고,²⁾ 同春堂 宋浚吉(1606-1672)도 덕업과 명망이 드러난 名世의 賢人이라고 하였다.³⁾ 문학적으로도 후대의 이덕무는 중국 문인 王阮亭⁴⁾이 『池北偶談』에 청음 聯句詩 10여수를 신고, 그 아름다움을 극찬했다고 하였다.⁵⁾ 이와 같이 청음은 병자호란의 상징적 인물이면서도 문학적으로도 뛰어난 문장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절의 못지않게 문장으로도 뛰어난 면모를 보인 청음이기에 지금까지 시도된 연구도 문장가로서의 관점⁶⁾과 春秋大義와 義理精神을 바탕으로 한

2) 蘇武는 漢나라 武帝 때의 충신이다. 匈奴에 사신으로 갔다가 억류되어 갖은 고난을 겪으며 들쥐와 열매로 연명하면서도, 끝까지 흉노에게 굴복하지 않고 19년 만에 돌아왔다(『漢書』 권54, 『李廣蘇建傳』). 洪皓는 南宋 高宗 때의 충신으로, 금나라에 억류되어 15년 동안 冷山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다(『宋史』 권373, 『洪皓列傳』). 『桐溪集』 권3, 『玉堂箚略』, “固是聖朝之欠事, 而尙憲又不幸遭意外之變, 拘囚六年, 艱苦萬狀, 而抗節不屈, 彼亦起敬, 雖蘇武之北海, 洪皓之冷山, 無以過此.”

3) 『同春堂集』 권10, 『上淸陰金先生』, “世道嬗變, 人事推盪, 以迄於今, 則誠有所不忍言者, 幸賴天眷我東, 特降名世之賢, 寵之夷夏, 使天綱地維, 得以不墜, 而東土生民, 免爲禽獸之歸, 則此固天之所定, 非人之所能與也, 雖於黃卷中尙想慕而興起, 何幸於吾身親見之也.”

4) 『靑莊館全書』 권34, <淸脾錄3> 『王阮亭』, “王士禎字貽上, 號阮亭, 後避雍正諱, 改名士正, 案亦曰士貞士徵, 亦號漁洋山人, 濟南新城人, 順治乙未進士, 康熙朝, 官至刑部尚書, 善爲詩, 大率淸秀閒雅, 澹靜流麗, 淹洽宏肆, 其老來諸作, 尤磊落槎牙, 爲海內詩宗者, 迄今百餘年, 無一人異辭, 尊敬之極, 書尺筆話, 漁洋二字, 必跳行而書.”

5) 『靑莊館全書』 권53, 『耳目口心書』, “阮亭池北偶談, 載淸陰先生詩十餘聯, 甚稱美之.”

6) 김경미, 『淸陰 金尙憲 詩 研究』, 『연세어문학』 제21집,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88; 조명주, 『《雪窩酬唱集》을 통해 본 淸陰 金尙憲의 詩 研究』,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황인건, 『丙亂 직후 지식인의 시적 대응-청음 김상헌의 《雪窩集》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제6집, 한국시가학회, 2000; 성범중, 『청음 김상헌의 삶과 시』, 『한국한시작가연구』 제9집, 한국한시학회, 2005; 황만기, 『淸陰 金尙憲 詩文學에 나타난 義理精神』,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김하운, 『청음 김상헌

역사적 관점에서 보는 시각⁷⁾이 우세하다. 더구나 주화파의 영수인 遲川 崔鳴吉(1586-1647)과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여 節操와 義理의 대명사로 비춰져서 청음에 대한 연구의 상당수도 병자호란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본고는 청음의 시문학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동안 節義의 상징으로서만 바라보던 청음에 대한 시각⁸⁾은 다수의 연구에서 자세하게 다뤄졌기 때문에, 척화파로서의 청음이 보여준 다수의 시문학들보다는 오로지 격변의 시대를 살다간 지식인의 내면세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다. 청음 연구에서 절의의 시각을 배제한 연구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고에서는 당대 보편적 지식인으로서의 청음의 모습을 淸閑, 孤獨, 達觀의 차원에서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충절로 비춰진 청음에 대한 평가와 인식을 다른 각도로 살펴봄으로써 당대 지식인의 한사람으로서 느끼는 일상적 고뇌와 번민, 초탈의 내면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⁹⁾

의 遊仙詩 小考, 『어문연구』 제73집, 어문연구학회, 2012; 김하운, 「청음 김상헌의 漢詩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김하운, 「청음 김상헌 上疏文의 특징과 설득전략」, 『한민족어문학』 제70집, 한민족어문학회, 2015.

7) 오수창, 「역사의 라이벌 최명길과 김상헌」, 『역사비평』 권42, 역사비평사, 1998; 지두환, 「청음 김상헌의 생애와 사상-春秋大義論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제24집,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1.

8) 김하운, 「淸陰 金尙憲의 漢詩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이 논문은 청음 시 세계에 대한 제 양상을 節操와 悲感, 望仙과 仙化, 追慕와 哀傷, 欽慕와 友誼로 분석하였는데, 지식인으로서 일상을 노래한 시인의 모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9) 『淸陰集』, 한국문집총간 권77, 민족문화추진회(1997)를 주 텍스트로 하였다. 김상헌 지음·정선용 옮김, 『淸陰集』, 민족문화추진회(2008)를 참고하였으며, 필자의 의견과 다른 부분은 수정·보완하였다.

II. 淸閑-고즈넉한 일상의 음영

하나의 단어로 한 인물을 규정하거나 단정지을 수 없듯이 청음을 의리와 절조의 상징적 인물로만 규정할 수는 없다. 다양하게 급변하는 시대 정세를 경험한 만큼, 그의 감정의 폭이나 깊이도 여러 층위의 모습으로 형성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시각과는 조금 다른 각도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당시 한 지식인으로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과 담담한 심회를 읊은 청음의 인간적 면모도 다수 찾을 수 있다. 한적한 일상을 통해 드러나는 시인의 생각과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의 문학적 순수성과 사물에 대한 인식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淸閑’은 정신의 맑고 한가함을 즐기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속세와는 거리를 둔 시인이 한적하고 평온한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통해 그의 내면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청음이 다른 문인과의 교류를 통해 일상을 노래한 작품들을 살펴보자.

동양위의 창연정 팔영에 차운해 지어 부쳐 보내다¹⁰⁾

| | |
|---------------------|-------|
| 사랑스러운 마음이 드는 강가의 언덕 | 可愛此江干 |
| 맑고도 시원한 한 구역이네 | 淸涼一片地 |
| 바람과 달 본디 기약 없기에 | 風月本無期 |
| 대에 올라보면 저절로 이르러 오네 | 登臨自來至 |

東陽尉는 象村 申欽(1566-1628)의 아들인 樂全堂 申翊聖(1588-1644)을 말하며, 蒼然亭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二水¹¹⁾ 지역이다. 청음은 신희·신익성 부자와도 친밀하게 교류하는 사이였고, 청음의 石室도 이곳

10) 『淸陰集』 권1, 「次韻寄題東陽尉蒼然亭八詠」其三.

11)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송호리 일대이다.

東淮의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기에 낙전당은 이 언덕 위에 창연정을 지었고,¹²⁾ 二水 일대의 강을 ‘淮’라 명하고 東淮의 八景을 읊은 것이다.¹³⁾

작품 마지막에 ‘상연대를 읊은 것이다[右爽然臺]’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는 창연정 八景 중에서 세 번째인 爽然臺와 주변의 淸絶한 景概를 노래하고 있다.¹⁴⁾ 상연대는 강가의 너른 들판에 큰길이 나 있는 곳에 위치하여 6월에도 시원한 바람과 경관이 펼쳐진 곳으로,¹⁵⁾ 가히 팔경 중에 한 곳으로 이를만하다. 시인은 상연대를 바라보며 사랑스럽다는 감정까지 직접적으로 표출하면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강가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밝은 달이 뜨는 자연의 현상은 서로 기약한 것이 아님에도 대에 올라가 보면 약속이나 한 듯이 시원한 바람과 밝은 달이 이른다고도 하였다. 바람과 달이 저절로 이르러 화자와 하나가 되는 물아일체의 모습을 떠올리게도 한다. 5언 절구의 짧은 형식이지만 자연을 바라보는 시인의 일상 속 풍경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안보역¹⁶⁾

오래된 역 산자락에 기대 있는데
사립문 단 여덟아홉 집만 있구나

古驛依山口
柴荆八九家

12) 『樂全堂集』 권4에 『蒼然亭 八詠』과 권8에 『蒼然亭說』이 실려 있다.

13) 김은정, 『樂全堂 申翊聖의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pp.114-115.

14) 張維, 『谿谷集』 권33, 『次韻蒼然亭 八詠』에서도 “상연이란 누대 이름 말해주듯이 / 정녕 청정한 구역임이 분명한데 / 주인이 오는 것은 보이지 않고 / 가끔 산승만 찾아오 누나(臺名曰爽然, 定是淸絶地, 不見主人來, 時有山僧至)”라 하였다.

15) 李敏求, 『東洲集』 권5, 『蒼然亭, 爲東陽尉賦』, “高臺隔炎夏, 六月涼風吹, 曠野有官道, 行人無已時.”

16) 『淸陰集』 권10, 『安보驛』.

| | |
|---------------------|-------|
| 문 앞에는 푸른 비단 물이 감돌고 | 縈門綠羅水 |
| 시냇가엔 하얀 모래 널리어 있네 | 帶岸白銀沙 |
| 곱게 우는 새는 깊은 숲에서 울고 | 好鳥歌深樹 |
| 한가로운 개는 지는 꽃 아래서 조네 | 閑態睡落花 |
| 누가 알리오 황량하고 궁벽진 곳이 | 誰知荒僻處 |
| 홀로 온갖 화사함을 다 차지한 걸 | 獨自擅華奢 |

1635년에 청음이 石室을 출발하여 춘천의 淸平山을 유람할 때 지은 5언 율시이다.¹⁷⁾ 청음은 蠶室과 甘泉驛, 加平郡을 지나서 超然臺에 올랐는데, 이곳은 처음에는 密州였다가 14세기에 淸州府로 변경되었다.¹⁸⁾ 청음이 거친 안보역은 석실부터의 거리가 백여 리는 되는 곳이었다.¹⁹⁾ 역 주변으로는 좌우로 빠른 물살이 흐르며 사방이 높은 산봉우리와 거친 들판으로 둘러 있어서 오래 서 있기 힘들 정도로 地勢가 높은 곳이기도 하다.

頭聯은 驛舍의 위치를 설명하며 시작한다. 고즈넉한 驛舍 주변을 산자락이 두르고 있고, 열 집도 채 안 되는 외로운 인가만이 호젓함을 더하고 있다. 적막한 분위기를 이어받은 頷聯은 문 앞으로 흐르는 맑은 물과 시냇가의 새하얀 모래들을 노래하고 있다. 이곳은 시냇물이 만들어내는 무지개로 인해 마치 신선의 경치 같다고 일컬어지기도 한다.²⁰⁾ 장소의 대구인 ‘縈

17) 1635년(을해, 인조13) 3월 8일부터 14일까지의 기록이 『淸陰集』 권13에 《淸平錄》으로 실려 있다.
 18) 李崇仁, 『陶隱集』 권6, 『超然臺』에 보면 “在諸城縣, 古之密州, 今隸淸州府”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19) 『淸陰集』 권10, 『乙亥三月 八日戊午』, “江上石棧二十里, 夕宿安保驛, 自石室至此百餘里.”
 20) 鶴峯 金誠一(1538-1593)도 “그 누가 신선 경치 길가에다 만들었나 / 한 줄기 시냇물이 옥 무지개 쏟아내네 / 악공에게 명하여서 젓대를 불게 하니 / 물소리와 젓대 소리 절로 잘 어울리네(仙區誰闢嶺途中, 一帶飛泉瀉玉虹, 試命工人吹鐵篳, 水聲天樂自商宮)”라면서 안보역 주변의 경치와 흐르는 물줄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鶴

門-帶岸', 색채어 대구인 '綠羅-白銀'이 청각적 이미지의 頸聯으로 시상을 이어받는다. 깊은 숲 속에서 노래하는 새와 무료함에 지친 개는 꽃잎 밑에서 한가로이 즐기고 있다. 3-6구는 모두 景物을 묘사한 '四實'의 구를 배치하여 시적 이미지를 두드러지게 하는 효과를 주었다.²¹⁾ 尾聯은 도치를 사용하여 차분하게 시상을 마무리한다. 궁벽지고 황량한 곳이 더욱 더 화사함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라는 되물음을 통해 시인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석양정 중섭의 공산에 있는 별서에 대해 읊은 잡영²²⁾

1.

| | |
|-----------------------|---------|
| 청명이 막 지난 때라 제비들은 재잘대고 | 清明初過燕喃喃 |
| 곡우 때에 봄비 내려 보리밭은 질푸르네 | 穀雨廉纖隴麥深 |
| 버들 길과 널다리 가 초가집은 자그만데 | 柳巷板橋茅店小 |
| 건너편 숲 사람 소리 꽃그늘 속에 있네 | 隔林人語在花陰 |

2.

| | |
|------------------------|---------|
| 낙엽 가득 쌓인 산에 가느다란 길 통하니 | 落葉藏山細路通 |
| 작은 암자 최고봉에 있다는 걸 알겠구나 | 小庵知在最高峰 |
| 해는 지고 안개 짙어 덩굴 속은 어둑한데 | 日沈烟暝藤蘿暗 |
| 맑은 소리 분명하게 먼 솔숲서 나오누나 | 清磬分明出遠松 |

峯集』, 《鶴峯逸稿》 권2, 「安保適中, 水石甚奇, 小憩溪邊, 全工人次筵, 以和水聲, 亦一奇也」.

21) 심경호는 남송시대 周弼의 『三體詩』를 설명하면서 한시에서 자연을 논할 때 景과 情의 교작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형상을 지닌 '景物'을 묘사한 '實'과 추상적인 '情思'를 서술한 '虛'의 구성이 전체 시에 영향을 미치고, 오언율시와 칠언율시에서 중간 네 구에 모두 경물을 묘사하면 '四實', 반대로 모두 정사를 서술하면 '四虛'라고 하였다. 심경호, 『한시의 세계』, 문학동네, 2006, pp.54-71.

22) 『清陰集』 권2, 「石陽正仲變公山別墅雜詠」.

石陽正은 세종의 玄孫인 灘隱 李霆(1541-1622)을 말한다. 그는 詩·書·畵에 뛰어나 柳德章, 申緯와 함께 조선시대 3대 화가로 손꼽히는 왕족화가이다.²³⁾ 봄을 배경으로 하는 公山은 남쪽으로 금강이 흐르고 서쪽으로는 계룡산이 뻗어 있는 곳이다. 바람이 일고 달이 뜰 때는 매화 향기와 그림자가 방 안에 가득 차는 경관을 자랑할 정도이니,²⁴⁾ 청음은 이곳 月先亭의 절경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別墅는 농장이나 들판에 한적하게 별도로 지은 집을 말한다. 제1수는 꽃이 핀 속에 있는 초가집[右白屋花開裏], 제2수는 안개 속에서 울리는 차가운 경쇠 소리[右寒磬發孤煙]를 읊었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

첫째 수는 비 내린 봄의 상쾌한 景物을 묘사하고 있다. 7언 절구는 경물을 묘사하는데 유리한 형식으로, 이 시 또한 작가의 情思보다 實景의 서술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제비들은 淸明이 지난 봄 절기를 기뻐하며 재잘대고, 穀雨에 알맞게 내린 봄비는 百穀을 기름지게 한다. 버드나무 늘어진 길가와 널빤지를 깔아 만든 다리 사이로 멀리 조그마한 초가집이 보이고, 숲에서는 꽃그늘 사이로 사람의 인기척이 들린다. 1·3구의 청각적 이미지, 2·4구의 시각적 이미지가 隔句로 대응하여 시의 묘미를 더해주고 있다. 조그만 초가집은 遠景, 건너편 꽃그늘은 近景을 나타내어 원근법의 시

23) 簡易 崔笠(1539-1612)은 『簡易集』 권8, 《西都錄前》, 「前於散畫帖, 題其半以還, 今復要畢寫, 爲四首」 '帖面'에 “我國名畫, 多出宗英, 目今如石陽正梅竹鶴林守晁季水石, 亦殊絕者也.”라 하였다. 또 茶山 丁若鏞(1762-1836)도 『茶山詩文集』 권14, 「題家藏畫帖」에서도 “又如石陽正之竹, 特稱神妙”라며 이정을 극찬하였다.

24) 『月沙集』 권37, 「月先亭記」, “隆而爲丘, 窪而爲池, 呀然而壑, 蔚然而園, 坦然而臺, 庭無雜樹奇花, 只二松千竹, 儼立如環衛, 又有十樹大梅近軒. 軒名十梅以別之, 風動月浮, 香與影滿室, 此皆吾廬之勝也. 每良辰勝日, 負杖登阜, 童子後先, 臨流觀魚, 魚小大可數, 呼鷹逐獸, 耳後生風, 濯足於溪, 石可坐沙可步. 暝色自遠, 村煙夕起, 人語砧聲, 斷續於霏靄之間, 余倦而歸, 山光滿簾, 夜深靜臥, 松聲竹韻, 泠泠入耳者, 此吾亭勝之所獨享也.”

각적 묘미도 느낄 수 있다.

둘째 수는 청각적 대상인 가을의 경쇠 소리를 노래하고 있다. 시인은 낙엽이 가득 쌓인 가느다란 산길을 따라서 암자에 오르고 있다. 자그마한 암자지만 가장 높은 봉우리에 자리하고 있어 미처 다다르기도 전에 어스름해는 지고 안개까지 짙게 깔린다. 암자는 아직 보이지 않고 저 멀리 소나무 숲 안개 사이로 울리는 경쇠소리만이 암자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 준다. 1-3구의 시각적 이미지가 4구의 청각적 이미지로 전환되어 이미지의 변화를 보이고, 경쇠소리만이 차가운 이미지가 서늘한 가을로 연결되고 있다. 두 수 모두 시인의 생각보다는 實景 중심의 경물묘사에 치중하였고, 계절을 통해 느끼는 일상의 넉넉한 흥취를 전해주고 있다.

봉헌 팔영²⁵⁾

| | |
|------------------------|---------|
| 강 저편엔 푸른 산 한 줄기가 빗겨 있고 | 隔岸青山一帶斜 |
| 맑은 강은 물새 노는 모래톱을 감도누나 | 清江迥抱白鷗沙 |
| 살랑바람 보슬비에 봄빛 살짝 얼어지니 | 微風小雨春光淡 |
| 십 리 길 어촌 마을 곳곳마다 꽃이구나 | 十里漁村處處花 |

봉헌은 直長 鄭好學(1560-1642)의 西江에 있는 寓舍[鄭直長好學西江寓舍]이다. 정호학은 淸安(현재 忠淸北道 槐山) 사람으로 1591년 顯陵 참봉이 되어 靖陵에 제수되었다. 서강은 현재 서울 근교를 흐르는 강을 가리키고, 우사는 임시로 지은 집을 말한다. 이 시는 7언 절구로 寓舍 주변 棠山의 봄 경치를 읊은 것이다.

서강 너머로 비스듬히 뻗은 산 전면으로 모래톱이 널리 펼쳐진 강물이 흐른다. 하얀 물새는 모래밭을 노닐며 봄 정취를 만끽하고, 강은 우사 주변

25) 『淸陰集』 권3, 『篷軒八詠』其二.

을 감동하며 흐른다. ‘靑山-白鷗’의 색채 대비가 서강에 찾아온 봄에 싱그러움을 더해준다. 잔잔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길게 늘어선 어촌 마을에는 곳곳마다 봄꽃이 피어 있다. 봄비를 살짝 머금은 마을의 꽃들은 은은한 봄 냄새를 풍기고, 수목을 머금은 풍경화를 보는 것처럼 평화로운 마을의 정경이 시인의 마음마저 차분히 가라앉게 하고 있다.

빗속에서 읊다²⁶⁾

| | |
|-------------------------|---------|
| 계을러서 이웃집을 찾아갈 흥 아니 일고 | 慵來無興過隣家 |
| 자다 깨니 오사모는 빼딱하게 얹혀 있네 | 睡起烏紗任整斜 |
| 문 닫아건 적막 속에 사흘 동안 비 내리자 | 寥落閉門三日雨 |
| 한 난간의 좋은 감상 해바라기 꽃에 있네 | 一軒幽賞屬葵花 |

시인은 집 안에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나른한 일상에 빠져 있다. 사흘이나 계속 내리는 지루한 비는 시인으로 하여금 이웃집에 찾아갈 흥취마저 잃게 하고 만다. 비는 계속 내리고 할 일 없이 무료함만 더해가니, 시인은 문을 닫은 채 낮잠만 청하게 되는 것이다. 잠에서 깨니 오사모는 빼딱하게 쓰여 있고, 비는 여전히 내린다. 문득 내리는 비 사이로 난간에 핀 해바라기 꽃이 시인의 눈에 들어온다. 平時에는 존재감을 주지 못하던 해바라기가 오늘은 무료한 시인의 일상을 달래주는 의미있는 존재로 다가온 것이다. 내리는 빗소리 외에는 한가한 정적만이 감돌고, 비가 내리는 동적인 배경에 정적인 이미지를 배치한 것이 돋보인다.

청음은 이처럼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무심한 듯 노래하면서 시인의 興趣와 情思를 주변의 사물에 寄託하여 드러내고 있다. 또한 자연 物境을

26) 『淸陰集』 권2, 「雨中」.

實事的 방법으로 묘사하여 음영하는 대상을 통해 일어나는 소소하고 잔잔한 감정의 편린들을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다.

Ⅲ. 孤獨-인생의 무상함 투영

인생무상은 인간에게 주어진 영원한 화두이기도 하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무상한 인생 속에 인간적 깨달음을 얻기 마련이고, 인생의 허무함이나 덧없음은 세월이 지나면서 더욱 깊어지게 된다. 그러다 문득 이 세상에 정해진 順理는 없다는 것을 是認하며, 존재의 본질적인 외로움은 더욱 크게 와 닿기 마련이다.

청음의 삶도 조선시대 四亂(壬辰, 丁酉, 丁卯, 丙子)의 소용돌이와 6년 동안의 심양 억류생활을 통해 수많은 浮沈의 시련을 겪었다. 그리고 이러한 굴곡진 삶은 시라는 매개체를 활용하여 고독한 내면세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이 장에서는 척화와 영수로서 느끼는 삶의 무상감이 아니라 조선 중기를 살다 간 한 지식인의 사유에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청음이 인생을 대하는 자세와 그가 지닌 외로움의 정서가 작품을 통해 어떻게 표출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강으로 가다²⁷⁾

석양빛은 모래 언덕 비추는데
인가들은 여기저기 숲 곁에 있네
외로운 배 어느 곳의 나그네인데
저녁 안개 낀 강가에 홀로 묵는가

夕照平沙岸
人家亂樹邊
孤舟何處客
獨宿暮江烟

27) 『淸陰集』 권1, 「江行」 其一.

5언 절구의 짙막한 시이지만 고독의 정서가 잘 압축되어 나타난 작품이다. 1·2구는 강가의 배경을 묘사하고 있다. 석양이 물드는 숲 속으로 人家들이 보이고, 해는 모래가 쌓인 언덕을 비추면서 뉘엿뉘엿 넘어간다. 흔히 해질녘 풍경은 인생의 황혼기에 빗대어 사용된다. 이 시 또한 노년기에 접어든 시인의 인생을 강가의 석양으로 빗대어 묘사하고 있다. 3·4구에서는 孤舟와 獨宿을 통해 외로움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전달되는데, 외로운 배는 홀로 강가에 묶인 채 저녁 안개를 맞으며 밤을 지새야 하는 신세이다. 나그네로 의인화한 ‘孤舟’는 시인의 감정을 투영한 것이다. 결국 ‘孤舟’는 청음 자신을 대변한 상징물로, 강가에 묶인 배 한 척을 보고 무상한 인생의 고독감을 표출한 것이다. 짧은 형식 속에 夕陽, 孤舟, 獨宿의 외로움을 상징하는 시어들을 행마다 배치하여 시인의 감정을 극대화한 표현들이 눈에 띈다.

외로운 무덤을 보고 슬퍼하다²⁸⁾

| | |
|--------------------|-------|
| 까마득히 높은 산이 사방 둘러고 | 岌嶮四山合 |
| 졸졸대는 양쪽 시내 사이는 좁네 | 潺湲雙澗夾 |
| 그 사이에 언덕 하나 솟아 있는데 | 中間一破壘 |
| 언덕 위엔 달랑 무덤 하나가 있네 | 壘上有孤塚 |
| 황량하게 소분하는 사람도 없고 | 荒涼灑掃缺 |
| 적막하게 향화조차 다 끊기었네 | 寂寞香火絕 |
| 어찌 일가 친척 하나 없을 것이며 | 豈云乏姻親 |
| 어찌 동료들이 적다 하겠는가 | 寧是寡僚賓 |
| 금여 이제 다시 탈 수가 없으니 | 金輿不復御 |
| 옥궤는 또 어디에다 부치겠는가 | 玉几付何處 |

28) 『淸陰集』 권8, 「哀孤塚」.

| | |
|--------------------|-------|
| 산과 달을 불 밝히는 촛불로 삼고 | 山月爲明燭 |
| 산새 불러 조문하는 객으로 삼네 | 山禽作吊客 |
| 바람 불어 소나무가 구슬피 울자 | 悲風松檜鳴 |
| 글을 읽는 소리처럼 들리는 듯하네 | 疑聽講書聲 |
| 가련하고 가련할사 구천 아래서 | 可憐九泉下 |
| 처량케도 어느 누가 그대를 알리 | 悽愴誰知者 |

깊은 산에 외로이 있는 무덤을 보고 읊은 5언 고시이다. 무덤은 생자의 마지막이자 죽음의 시작을 알리는 장소이다. 亡者의 마지막 길은 보통 외롭지 않도록 생전의 遺物을 같이 매장하거나, 死後 무덤의 관리를 통해 망자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금 청음이 바라보고 있는 무덤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의 손길이 끊긴 채 초라한 모습으로 덩그러니 놓여 있는 모습이다.

1-4구는 높은 산을 양쪽으로 적막하게 에워싸고 흐르는 시냇물 사이에 무덤이 있다는 설명이다. 언덕 위에 외롭게 놓인 무덤은 주변에 우뚝 솟은 山勢나 경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욱 초라하게 보인다. 5-8구는 쓸쓸한 무덤의 묘사이다. 언제부터 가족의 손길이 끊겼는지 무덤은 관리의 흔적도 없고, 제사를 지내거나 향을 피운 흔적도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만 남아 있다. 생전의 일가친척이나 동료들도 없지는 않으려면만 인생도 무상하게 생과 死의 거리감은 멀기만 한 느낌이다. 9-12구는 시상을 전환하여 亡者를 위로하고 있다. 생전에 사용하던 수레[金輿]와 방석[几席]도 이제는 모두 부질없는 영화가 되고 말았으니, 청음은 산 속 달을 촛불로 삼고 산새들을 조문객으로 삼으며 위로하고 있다. 결국 생전의 부귀영화도 모두 쓸모없게 돼 버렸고, 망자는 새와 달의 품인 자연으로 돌아간 것이다. 13-16구는 시인의 감정으로 시상을 마무리한다. 산바람이 불어 슬프게 우는 소나무는

마치 글을 읽는 소리처럼 들리고, 九泉으로 떠난 망자는 누가 알아줄지 가련하기만 하다고 하였다.

전체적으로 1-8구는 景物의 묘사로 무덤의 황량함을 표현했고, 9-12구는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13-16구는 시인의 情思를 표현하였다. 무덤을 노래한 작품을 하나 더 살펴보자.

길가에 있는 무덤²⁹⁾

| | |
|--------------------|-------|
| 산길 가에 홀로 있는 외로운 무덤 | 路傍一孤塚 |
| 그 자손들 지금 모두 어디 있는가 | 子孫今何處 |
| 오직 한 쌍 돌사람만 무덤 앞에서 | 唯有雙石人 |
| 오랜 세월 안 떠나고 지키고 있네 | 長年守不去 |

청음은 외롭게 버려진 무덤을 바라보면서 역시나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드러내고 있다. 산길 가장자리에 황폐한 모습으로 놓은 무덤은 가족도 없이 버려진 듯 초라한 모습이다. 보통 무덤 좌우에는 기둥 모양의 望柱石이 있고, 그 밑에 한 쌍의 文人石이 있다. 이 초라한 무덤도 오직 한 쌍의 문인석[石人]만이 오랜 세월동안 묵묵히 亡者를 지켰을 것이다. 나란히 남겨진 두 개의 문인석은 홀로 남겨진 무덤과 상대적인 대조를 이룬다. 청음은 결국 생전의 부귀영화도 삶의 끝에서는 부질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덩그러니 남겨진 무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효성령³⁰⁾

| | |
|--------------------|-----|
| 효성령 고갯길은 험하고도 험하여서 | 曉星嶺 |
|--------------------|-----|

29) 『淸陰集』 권1, 「路傍塚」.

30) 『淸陰集』 권9, 「曉星嶺」.

| | |
|-------------------------|-----------|
| 고개 위의 많은 돌들 뾰족하고 단단하네 | 嶺上石多尖且硬 |
| 기암으로 되지 않고 평평하게 늘어선 채 | 不作奇巖列平堤 |
| 요로에 와 있으면서 수레바퀴만 부수누나 | 來居要路破輪蹄 |
| 이게 어찌 하늘에서 객들 곤욕 줌일런가 | 豈是天意困行旅 |
| 응당 지세 좋은 곳이 없다는 걸 잘 알겠네 | 應知地勢無佳處 |
| 어찌하면 당몽처럼 서촉 수만 장정 얻어 | 安得唐蒙西蜀數萬丁 |
| 하룻밤 새 밀어내어 평탄한 길 뚫으려나 | 一夕蕩平開夷庚 |
| 인간 세상 곳곳마다 널따란 길 있건마는 | 嗚呼人間處處有康衢 |
| 어찌하여 나만 홀로 험난한 길 가야 하나 | 我獨胡爲由此途 |

청음이 1626년 5월에 聖節 兼 謝恩 陳奏使로 북경에 사행가면서 느낀 감회를 적은 시이다. 효성령은 평안북도 박천군 가산면에 있는 고개로, 關西의 關防이 되는 요해처이다.³¹⁾

1-6구는 효성령의 험난한 모습인데, 고갯길은 돌도 뾰족하고 단단해서 무척이나 험난한 길이라고 한다.³²⁾ 東華 李海應(1775-1825)의 『蘊山紀程』에도 효성령은 숲이 울창해서 낮에도 뱀을 만나며, 길이 가팔라서 말을 탄 사람도 걸어야 될 정도라고 하였다.³³⁾ 길에 늘어선 바위들은 지나가는 수레바퀴까지 부술 정도로 길이 험한데, 시인은 하늘이 나그네들에게 곤욕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디부터 효성령이 험하다고 위로해 본다. 7-10구는 시인의 情思를 말하고 있다. 唐蒙은 番陽縣의 縣令으로 巴와 蜀 장정들을 모아서 西南夷로 향하는 천 리의 길을 뚫은 인물이다. 청음도 당몽처럼 이 험난한 고개를 시원하게 밀어내어 평탄한 길을 만들고 싶어한다. 그

31) 『弘齋全書』 권44, 『備局區畫嘉山渴馬倉改建物力啓批』, “曉星嶺, 卽關西關防之咽喉.”

32) 『淸陰集』 권8, 『送姜吏部復而充僉幕從事, 先往關西』, “崎嶇曉星嶺, 迢遞雲興驛.”

33) 『蘊山紀程』 권1, 出城, 十一月初八日條, 『曉星嶺』, “曉星爲嘉山邑鎮, 而廻紆峻急, 輻者興騎者步, 亦一關隘地也, 林木茂鬱, 白日行人, 往往逢虎豹云.”

러나 현실은 세상에는 넓고 편안한 길을 가는 사람도 많은데, 왜 자신은 외롭고 험한 길을 가야만 하는지 한탄하는 모습이다. 효성령의 험난한 고개를 넘어가는 자신의 외로운 모습을 힘든 여정과 같은 고독한 인생길에 비유한 것이다.

가을비가 내려 감회가 일기에 읊다³⁴⁾

| | |
|------------------------|---------|
| 가을비 오는 소리 잎새 위에서 들리더니 | 秋雨蕭蕭葉上聞 |
| 서늘한 기운 먼저 나눠 다락마루 들이누나 | 先分涼氣入層軒 |
| 작은 휘장 살짝 치니 등잔불은 폭 꺼지고 | 輕侵小帳燈花落 |
| 찬 계단을 마구 치매 난초 잎새 흔들리네 | 亂滴寒階蕙草飜 |
| 직직 우는 벌레 소리 애절해 못 참겠는데 | 蟲語不堪聲轉苦 |
| 가는 세월 덧없어라 물과 같이 흘러가네 | 年華無賴水爭奔 |
| 새 시름과 옛 한을 겸해 서로 헤어지니 | 新愁舊恨兼相別 |
| 하룻밤 새 반랑 살쩍 하얀 눈이 내리리라 | 一夜潘郎鬢雪繁 |

인간의 삶이 덧없음을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7언 율시이다. 두련과 함련은 가을비가 내리는 實景을 노래하고 있다. 내리는 가을비 소리가 잎새에서 들리고, 서늘한 기운은 다락마루까지 들어온다. 휘장을 걷으니 바람에 등잔불이 꺼지고, 섬돌을 치는 빗줄기 때문에 난초 잎새마저 흔들리고 있다. 초반의 경치 묘사가 경련과 미련에서는 시인의 감회로 이어진다. 가을 밤에 울어대는 벌레소리는 그 소리가 더욱 처량하기 마련이고, 흐르는 물은 서로 다투듯이 빠르게만 흘러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전의 한과 새로운 시름을 모두 떨쳐버리고 나면, 潘郎의 귀밑머리처럼 흰 머리가 생길 것이라고 하였다. 반랑은 진나라 사람 潘岳(247-300)으로, 『秋興賦序』에

34) 『淸陰集』 권5, 「秋雨感懷」.

보면 반량은 어릴 적부터 근심이 많아 서른두 살부터 흰머리가 보였대[余春秋三十有二, 始見二毛]고 하였다. 여기서의 반량은 시인 자신을 빗대어 노래한 것으로, 청음이 느끼는 인생에 대한 시름과 걱정을 대변해서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이 청음은 자신의 내면적 정서인 인간의 죽음과 외로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노래하고 있다. 결국 現世에서의 부귀영화도 모두 무상한 인생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은 모두 고독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생무상은 대부분 대상이 가진 특성에 시인을 투영해서 이미지를 형상화시키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부정적·비관적·하향적 이미지들에 시인의 감정을 전이시켜서 표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IV. 達觀-초월적 태도와 여유의 경지

사물이 지닌 이미지는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하거나 작가의 창의적 결합을 통해서 속성을 부각시키기도 한다. 더구나 인생의 진리를 꿰뚫고자 하는 달관의 자세는 사물에 대한 깊은 호기심에서 출발하여 좀 더 심오한 洞察로 이어지고, 이를 넘어 인간 존재의 의미와 超脫로 귀결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청음이 드러낸 달관의 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산³⁵⁾

산의 형세 나지막해 백 길도 채 안 되는데
목동 없고 시든 풀만 갈바람에 흔들리네
뜬 인생은 본디부터 하얀 포말 같은 건데

山勢元無百仞崇
牧殘衰草動秋風
浮生自是同泡幻

35) 『淸陰集』 권9, 「牛山」.

무슨 일로 그 당시에 제 경공은 통곡했나

何事當年泣景公

1626년 북경 사행길에 오르며 지은 작품이다. 牛山은 山東省 淄博市에 있는 산으로 일명 齊山이라고도 한다. 제나라 경공이 우산에 놀러갔다가 인생의 짧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³⁶⁾ 이후에 인생의 짧음을 노래하는 시를 牛山體라고도 하였다.

1·2구는 우산에 대한 객관적 묘사이다. 우산의 형세는 그리 가파르지 않아서 백 길도 채 안 되고, 가축에게 풀을 먹이는 목동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풀은 계속 자라서 시들어 가고, 가을 바람은 시든 풀잎을 힘없이 흔들어대고 있다. 3·4구에서는 초탈한 시인의 여유있는 모습이 다. ‘浮生’은 덧없는 인생, ‘泡幻’은 물거품과 같은 허무한 삶을 의미한다. 청음은 인생을 물거품과 동일화하여 어차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헛된 꿈처럼 부질없다면서, 제나라 경공은 무엇 때문에 우산에 올라서 눈물까지 흘리며 통곡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한 것이다.

가을날의 부채³⁷⁾

대 쪼개고 종이 발라 온갖 기교 다 부러서
천지 조화 큰 홍로가 기이한 공 이루었네
염량 쉽게 변해지고 사람들 정 야박하매
추풍 불자 영락해져 상자 속에 들어가네

削竹裁藤意匠工
洪鑪天地策奇功
炎涼易變人情薄
零落秋風故篋中

한여름의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부채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지만, 계절

36) 『晏子春秋』, 『諫』上 17, “景公遊於牛山, 北臨其國城而流涕曰, 若何淘淘去此而死乎.”

37) 『淸陰集』 권3, 『秋扇』.

이 바뀌면 부채는 무용지물의 신세가 된다. 이 시는 쓸모없게 된 가을철의 부채처럼 변하는 세상살이의 인심을 표현하고 있다. 5언 절구의 짧은 형식이지만, 시 전체에 吟詠 대상인 부채를 지칭하는 시어는 보이지 않는다. 사물을 분명하게 다 말하지 말고 비슷하게 형용해야 그 妙處를 알 수 있는 咏物시³⁸⁾의 느낌으로 대상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1·2구는 부채에 대한 예찬이다. 부채는 40여 개로 쪼갠 대나무 살에다가 다나무 한지를 발라서 만드는데, 조물주[洪鑪]의 기교로 만들어진 훌륭한 부채라는 것이다. 그러나 3·4구에서는 이렇게 공을 들여 만든 부채도 더위와 추위가 변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도 쉽게 바뀐다고 하였다. 더운 여름을 나기 위해서 필수였던 부채도 가을이 되면 사람들의 인식이 차갑게 바뀌어서 부채가 누렸던 한여름의 榮華는 사라지고 상자 속으로 전락해 버리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을 빗댄 것이다. 이는 곧 권세가 있으면 아침하여 좇다가 권세가 사라지면 무시하고 마는 炎涼世態의 세상 인심을 말한다. 청음은 부채라는 대상을 통해 쉽게 변하는 세태를 유추하였고, 이러한 세태를 담담한 어조로 담아내며 달관자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농포 안의 풀꽃을 보고 느낌이 있어서 짓다³⁹⁾

| | |
|-------------------|-------|
| 아침나절 빗속에서 피었다가 | 朝向雨中開 |
| 저녁나절 빗속에서 떨어지누나 | 暮向雨中落 |
| 성쇠 어찌 그렇게도 급급히 하나 | 盛衰何汲汲 |
| 피고 짐이 아침저녁 사이에 있네 | 榮落在朝夕 |
| 뜬 인생이 이 세상에 처하여서는 | 浮生處世間 |

38) 魏慶之, 『詩人玉屑』 권6, 『詠物詩造語』, “詠物詩, 不待分明說盡, 只髣髴形容, 便見妙處.”

39) 『清陰集』 권8, 『圃中草花有感』.

| | |
|--------------------|-------|
| 한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네 | 百年如過隙 |
| 만사 모두 그러하지 앓음 없나니 | 萬事無不然 |
| 길게 탄식 토할 필요 뭐가 있으랴 | 何用長歎息 |

農圃는 물을 대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땅을 말한다. 농포 안에 피어 있는 풀꽃들은 무심하게 지나칠 수도 있는 무의미한 존재에 불과하다. 하지만 청음은 이 풀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으로 인생을 읽어낸다. 풀꽃처럼 대상에 대한 시인의 의미부여 여부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두련과 함련에서는 풀꽃이 비를 맞으며 生長하지만, 빗줄기로 인해 다시 꽃을 떨구게 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아침에 피었던 풀꽃은 하루도 안된 사이에 허무하게 저 버렸다. 榮落이 너무도 짧은 순간[朝夕]에 끝나 버린 채 아쉬움만 남기고 말았다. 풀꽃을 인생에 빗대어 이해하면 ‘朝-暮’는 인간의 ‘生-死’를 의미하고, ‘開-落’은 ‘盛-衰’를 의미한다. 이어서 경련과 미련에서는 시인이 지닌 超脫한 달관자적 모습을 느낄 수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모두 부평초처럼 떠다니는 허무한 인생[浮生]에 지나지 않고, 인간의 일생 또한 조석 사이에 떨어지는 풀꽃처럼 순식간에 지나가고 만다는 것이다. 나아가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살이 모든 것이 이와 같지 않은 것이 없으니, 굳이 長歎息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하였다. 지나치기 쉬운 풀꽃의 모습을 통해 인생을 읽어내는 청음의 깊은 통찰력이 엿보인다.

고곡 시의 운을 차운하다⁴⁰⁾

| | |
|--------------------|-------|
| 꽃이 진 건 지난해의 어느 날이고 | 花落去年日 |
|--------------------|-------|

40) 『淸陰集』 권9, 「次古曲 四首」 其一.

| | |
|---------------------|-------|
| 꽃 피는 건 이번 해의 봄이로구나 | 花開今歲春 |
| 연년세세 어느 해나 꽃들은 피고 | 年年歲歲花 |
| 세세연년 어느 해나 사람들 보네 | 歲歲年年人 |
| 꽃을 보고 묻자 꽃은 스스로 웃고 | 問花花自笑 |
| 꽃 대하매 마치 전에 알던 것 같네 | 對花如舊識 |
| 꽃 쉽사리 늙는다고 말하지 말라 | 莫言花易老 |
| 사람들의 일생 마치 조석 같다네 | 人生幾朝夕 |

꽃다운 나무를 노래했다[右芳樹]는 설명이 붙어 있는 5언 율시의 차운 시이다. 전반부는 꽃을 바라보는 시인의 객관적인 서술이다. 꽃이 피고 지는 자연의 순환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서 거스를 수 없는 순리이기에 작년에 졌던 꽃은 올봄에 새로 꽃을 피우고, 사람들은 해마다 새로운 꽃들을 보게 된다. ‘花落-花開’, ‘去年-今年’, ‘花-人’의 대조적인 시어와 ‘年年歲歲-歲歲年年’의 도치를 통해서 다양한 시적 기교의 활용을 느낄 수 있다. 경련과 미련에서는 꽃과 소통하는 시인의 모습이다. 청음은 꽃에게 질문을 던지니 미소로 화답하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았던 것처럼 친숙함을 느낀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꽃이 쉽게 지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당부도 잊지 않는다. 우리 인간의 일생도 朝夕之間에 쇠하는 꽃처럼 짧은 순간이라는 것을 당부한 것이다.

이와 같이 청음은 무정물을 통해 炎涼世態의 세상 인심과 人生의 眞理를 통달하고, 사소한 일에 집착하거나 연연하지 않으려 한다. 또한 인간의 삶이 一場春夢의 꿈처럼 덧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생애 매달리거나 집착하지 않는 달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V. 결론

본고는 조선 중기 문학가인 清陰 金尙憲의 한시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시세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청음은 丙子胡亂을 계기로 斥和派의 首長으로 각인되었고, 그의 인생의 대부분은 신화된 道理와 명나라에 대한 節義로 각인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절의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되기 이전에 그도 당대 私人으로서의 보편적 지식인이었다는 점이다. 현실에 대한 인간적 고뇌와 번뇌를 느끼고, 삶과 인생에 대해서 사색하는 보편적 지식인으로서의 삶을 조명하고 이해하자는 취지에서 본 연구가 시작된 것이다.

청음은 조선 중기 지식인의 일상과 마찬가지로 고뇌하고 번민하며 초탈한 달관자의 모습을 사물에 투영하여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 사물인 정자와 무덤, 부채에서부터 자연을 노래한 봄 경치나 비, 산, 풀꽃과 나무에 이르기까지 주변에서 보이는 일상적 사물과 자연물에 자신의 감정을 투영시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논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청음은 소탈한 일상을 노래하면서, 주변의 대상들을 중심으로 일상의 淸閑한 모습을 담담하게 표현하였다. 그리 화려하거나 멋내지는 않았어도, 당대 지식인들처럼 보편적 일상들을 그려냈던 것이다. 또한 인생의 무상함을 고독에 투영하여 표출하기도 하였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덤이나 유유히 흐르는 강, 힘들게 넘어야 하는 고개들을 인생에 빗대어 인간이 느껴야 하는 근원적 고독감을 표현해 내고 있다. 나아가 인간의 원초적 고독감을 통해서 청음은 달관자적 여유를 보이기도 하였다. 염량세태의 인심을 부채에 빗대어서 나타내거나, 이름 없는 꽃과 나무를 吟詠하며 인생의 眞理에 通達한 여유의 경지를 느낄 수 있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한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이지만, 허무할 수도 있는 인생의 진리 앞에서 초연한 태도를 보인 시인의 의연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서 보여주었던 청음의 사상과 정신, 가치관 등의 모든 중심에는 그가 척화파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본고에서는 청음을 대하는 고정된 인식을 달리하여 기존에 청음의 여러 연구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한 지식인의 고뇌와 초탈한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 것이다. 앞으로 청음 문학을 대상으로 그의 다양한 내면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폭넓고 巨視的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蘊山紀程』.

『宋史』.

『晏子春秋』.

『漢書』.

金尙憲 지음·정선용 옮김, 『國譯 淸陰集』, 민족문화추진회, 2006.

金尙憲, 『淸陰集』, 한국문집총간 권77, 민족문화추진회, 2006.

金誠一, 『鶴峯全集』, 한국문집총간 권48, 민족문화추진회, 1998.

김은정, 『樂全堂 申翊聖의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pp.114-115.

김하운, 『淸陰 金尙憲의 遊仙詩 小考』, 『어문연구』권73, 어문연구학회, 2012.

김하운, 『淸陰 金尙憲의 漢詩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李德懋, 『靑莊館全書』, 한국문집총간 257-259, 민족문화추진회, 2005.

宋浚吉, 『同春堂集』, 한국문집총간 106-107, 민족문화추진회, 1999.

申翊聖, 『樂全堂集』, 한국문집총간 권93, 민족문화추진회, 1999.

심경호, 『한시의 세계』, 문학동네, 2006.

안대회, 『한국 한시의 분석과 시각』,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오수창, 『역사의 라이벌 최명길과 김상헌』, 『역사비평』, 권42, 역사비평사, 1998.

魏慶之, 『詩人玉屑』.

李敏求, 『東洲集』, 한국문집총간 권94, 민족문화추진회, 1999.

李崇仁, 『陶隱集』, 한국문집총간 권6, 민족문화추진회, 1991.

李廷龜, 『月沙集』, 한국문집총간 권69, 민족문화추진회, 1999.

張 維, 『谿谷集』, 한국문집총간 권92, 민족문화추진회, 1994.

正 祖, 『弘齋全書』, 한국문집총간 권262, 민족문화추진회, 1998.

丁若鏞, 『茶山詩文集』.

崔 笠, 『簡易集』, 한국문집총간 권49, 민족문화추진회, 1998.

하진규, 『청음 김상헌의 생애와 문학』,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Abstract

Contemplation of Korean poems by Chung-um Sang-hyen Kim's
on anguish and transcendence of intellectuals in those days

Kim, Ha-yun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generality of agony in an intellectual view of Korean poems written by Kim Sang-hyen. The majority of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Cheok hwa pa of the Manchu Invasion of Korea in 1636. However, few studies have focused on the aspect of the personality of Kim Sang-hyen.

Therefore,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personal aspect of Kim Sang-hyeon that has not been investigated in other studies. He was also one of many politicians who worried about the crisis of his country coming from frequent invasions by the neighbor country. He had difficulties in expressing his personal emotions. This has naturally led him to focusing more on Korean poems regarding emotionless objects till the Manchu Invasion of Korea in 1636. This study also sheds new light on intellectual struggles with thoughts represented by Kim Sang-hyen and his personal life.

He had written a poem about an ordinary life for Honest poverty and expressed the solitude of Futility of life. By adding themes of Philosophical ripeness, he had been showing a weakness agonizing about a personal life prior to become a hero of the Manchu Invasion of Korea in 1636.

Key Word : Sang-hyen Kim, honest poverty, solitude, a philosophic view,
anguish, transcendency

김하윤

소속 : 배재대학교 교양교육부 조교수

전자우편 : kiwi4474@pcu.ac.kr

이 논문은 2017년 11월 12일 투고되어
2017년 12월 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7년 12월 8일 게재 확정됨.